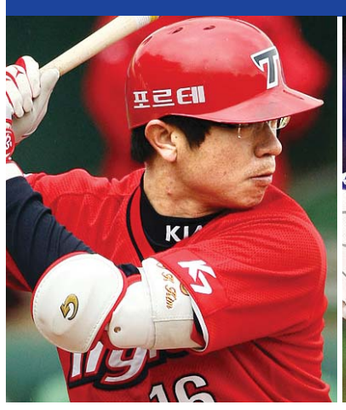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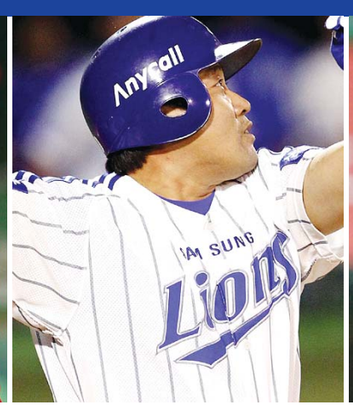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수비의 달인도… 타격의 달인도… 200홈런 타자도…


〈김종국〉


〈양준혁〉

〈김재현〉

굿바이! 그라운드

15일 KIA 김종국·19일 삼성 양준혁 은퇴식… SK 김재현도 선수생활 마감

한국 프로야구의 스타들이 정든 그라운드와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수비의 달인' 김종국이 15일 은퇴식을 갖고 15년의 선수생활을 마감한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야구 간판타자 삼성 양준혁과 SK 김재현도 올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난다.

1996년 KIA의 전신 해태에 입단해 내야를 수성했던 김종국이 두산과의 경기가 열리는 15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은퇴식을 갖는다.

김종국은 2009시즌까지 통산 1359경기에 출장해 1086안타 타율 0.247, 66홈런 429타점 604득점 254도루를 기록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종국은 이해 2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태극마크를 다는 등 최고의 수비로 내야를 누볐다.

2009시즌 선수로 팀의 우승에 함께 했던 김종국은 지난 4월말 플레잉코치로 2군에서 선수단을 조련해왔다.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김종국은 15일 은퇴식에 앞서 오후 5시30분부터 30여분 간 타이거즈 샵 옆 포토존에서 사인회를 갖고 팬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김종국은 부인 최세훈씨 등 가족과 함께 은퇴식에 참여해 구단으로부터 순금으로 만들어진 야구공과 유니폼 액자 등 기념물을 전달받는다.

양팀 감독과 주장의 꽃다발 전달식 이후 김종국은 은퇴사를 낭독하고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켰던 2루 베이스에 입맞춤을 한 뒤, 관중과 선수단에 작별인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의 시구와 시타는 김종국과 아들 준영(7)군이 맡는다.

프로야구의 역사 삼성 양준혁도 19일 은퇴경기를 갖고 아름다운 퇴장을 한다.

올스타전 참가 이후 은퇴의사를 밝혔던 양준혁은 지난 8일 한 달 보름만에 1군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롯데와의 경기에 9회 대타로 출전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삼성의 선동열 감독은 은퇴식이 열리는 19일 양준혁을 1회부터 끝까지 기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미디어 데이에서 깜짝 은퇴 선언을 했던 SK의 김재현도 그라운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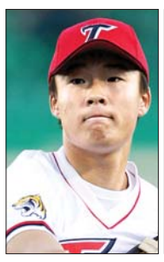
은퇴 경기 일정이 따로 잡혀있지는 않지만 SK는 12일 KIA와의 홈경기에서 은퇴를 앞둔 김재현의 통산 200홈런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강 국제요트대회 개막

9일 오후 한강 난지지구에서 한강국제요트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참가 요트들이 경기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승혁 1억8000만원
홍건희 1억4000만원


〈한승혁〉

〈홍건희〉

KIA 신인 입단계약 완료

KIA 타이거즈의 1라운드 지명선수인 강속구 투수 한승혁(덕수고)이 계약금 1억8천만원에 입단을 확정지었다.

KIA 타이거즈는 9일 한승혁을 비롯한 2011년 신인 선수 8명과의 계약을 마무리 했다.

한승혁은 계약금 1억8000만원과 연봉 2400만원에 도장을 찍었고, 화순고 우완 홍건희는 계약금 1억4000만원과 연봉 24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150㎞가 넘는 강속구를 보유한 한승혁은 우완 최고 투수로 주목을 받으며 2억~3억 선에서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부상 전력탓에 1억8천만원에 입단이 확정됐다.

한승혁 측은 "아쉬움은 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몸관리 잘해서 자신감 있는 투구를 선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광주일고를 거쳐 원광대에서 외야수로 뛰고 있는 윤정우는 9000만원, 제주산업대 투수 우병결은 7000만원, 대구고 내야수 정상교는 60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제물포고 외야수 유재혁과 광주일고 투수 박기철, 개성고 내야수 박세준은 각각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한편 9라운드에서 지명된 박태원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궁' 기보배 세계 최고 무대 선다

김우진·임동현·윤옥희 등과 월드컵 파이널 출격

기보배(광주시청·사진)가 양궁 최강자를 가리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 오른다. 국제양궁연맹(FITA)은 오는 18일(이하 한국시간)과 19일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월드컵 파이널에 기보배와 김우진(충북체고), 임동현(청주시청), 윤옥희(예천군청)등 한국 국가대표 4명이 출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월드컵 파이널은 매년 4차례 월드컵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남녀 8명씩을 초청해 그 해의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기보배와 김우진, 임동현, 윤옥희는 월드컵 4개 대회 가운데 2개 대회에만 출전했지만 상위권에 들면서 월드컵 파이널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다.

대한양궁협회는 대표선수들이 오는 11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표팀 합숙훈련에 매진해야 하지만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권위 있는 대회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남녀 대표팀 막내 김우진과 기보배는 태극마크를 단 이후로 국제대회 경험이 월드컵 두 차례밖에 없다. 그때문에 파이널에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메이저대회의 경험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현과 윤옥희 등 다수 세계기록을 보유하는 글로벌 에이스들도 자신감을 충전하고 마무리 실전 컨디션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이번 월드컵 파이널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다른 나라 간판들도 출전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전략의 토대가 되는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도 있다. /연합뉴스